가족간 소통 키우는 '기적의 놀이터'

정읍시 내장산문화광장 일원 7가지 테마 공간 조성 공식 개장 놀이+교육 역할 '복합문화공간'

지난 1일 정읍 내장산문화광장 일원 기적의놀이터에서 이학수(왼쪽 여덟번째)시장과 박일(왼쪽 열번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장기념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정읍시 기적의놀이터'를 공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지난 7~8월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운영 결과 어린이들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환경, 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을 조성됐다.

'정읍시 기적의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참여형 놀이공간이다.

1만9000㎡ 규모의 넓은 부지에 ▲유아놀이터 ▲거미줄놀이터 ▲단풍나무놀이터 ▲모래놀이터 ▲골목길놀이터 ▲숲놀이터 ▲창의놀이공간 등 7개의 테마 공간이 조성됐다.

각 공간은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놀이하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놀이창고에는 모래놀이 도구, 고리걸기, 굴렁쇠 등 다양한 전통·창의 놀이도구가 비치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시는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창의력과 협동심을 배우고 부모와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나누며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내장산문화광장 놀이터에는 400여명의 시민과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개장식이 열렸다.

풍선공연과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고 어린이들은 놀이 공간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장식 자리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오늘의 개장은 정읍시가 꿈꾸는 미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며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펼치고 부모와 가족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 세계적 희귀종 '청다리도요사촌'

고창군 '이달의 새' 선정…철새 보호 캠페인

고창군이 9월의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청다리도요사촌(Nordmann's greenshank·사진)'을 선정하고 철새 보호에 대한 군민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캠페인을 이어간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청다리도요와 닮았지만 전 세계에 500~13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종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EN)'으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새다.

이 새는 러시아 북동부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번식해 동아시아 연안을 따라 남하한 뒤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난다.

긴 이동 과정에서 고창갯벌은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창갯벌에서는 '2022년 빅버드레이스 대회'에서 최초 관찰된 이래로 매년 가을 1~2마리의 청다리도요사촌이 찾아와 전국의 탐조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주로 단독 이동을 하거나 청다리도요 무리에 섞여 다니며 특정 갯벌과 하구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습성이 있다.

짧고 노란빛을 띠는 다리와 굵고 곧은 부리가 특징으로 청다리도요와 쉽게 구별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갯벌은 청다리도요사촌을 비롯한 멸종위기 철새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중요한 서식지"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활동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명장' 찾습니다

숙련기술인 발굴 22일까지 모집 38개 분야 92개 직종…직종별 1명

정읍시가 평생 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올해 '정읍시 명장' 후보자를 모집한다.

'정읍시 명장'은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을 준용해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직종별 1명 이내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명패가 수여된다. 연구활동비 300만원도 2년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장이나 관련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자격과 심사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 명장 선정이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17개 부서 회계 담당자 맞춤 컨설팅…구매 품목 안내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

남원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 17개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남원시는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매 실적이 저조한 17개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맞춤형 조언을 받았다.

컨설팅에서는 정량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실적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또 실제 구매 가능한 품목 안내와 각 부서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남원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서 실제 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70종으로 확대

조청 등 19개 품목 추가…인재학당 기자재 지원 목표 2억원 모금도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대폭 확대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9월부터 33개 품목, 70종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기존보다 19개 품목이 답례품으로 추가됐다.

새로 선정된 답례품은 ▲백향과 식품 ▲조청 ▲묵 세트 ▲김병종미술관 아트 상품 ▲액세서리 ▲뷰티·화장품 ▲방짜유기 등 생활·공예품 ▲전북투어패스 남원춘향여행권 등이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매년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사업(뉴질랜드, 50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성화고 실습용 푸드트럭 지원사업(1대)도 실시했다.

지정기부 사업인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셔틀버스, 책상, 의자) 구입 지원을 목표로는 2억원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자 예우를 위해 온·오프라인(남원시 누리집, 시청 로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기금사업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의 손 편지를 기부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기부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부자 중심의 답례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확대

고창군이 9월부터 연말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가경정예산 기반의 국비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고창군에서 지급하는 '고창 군민활력지원금'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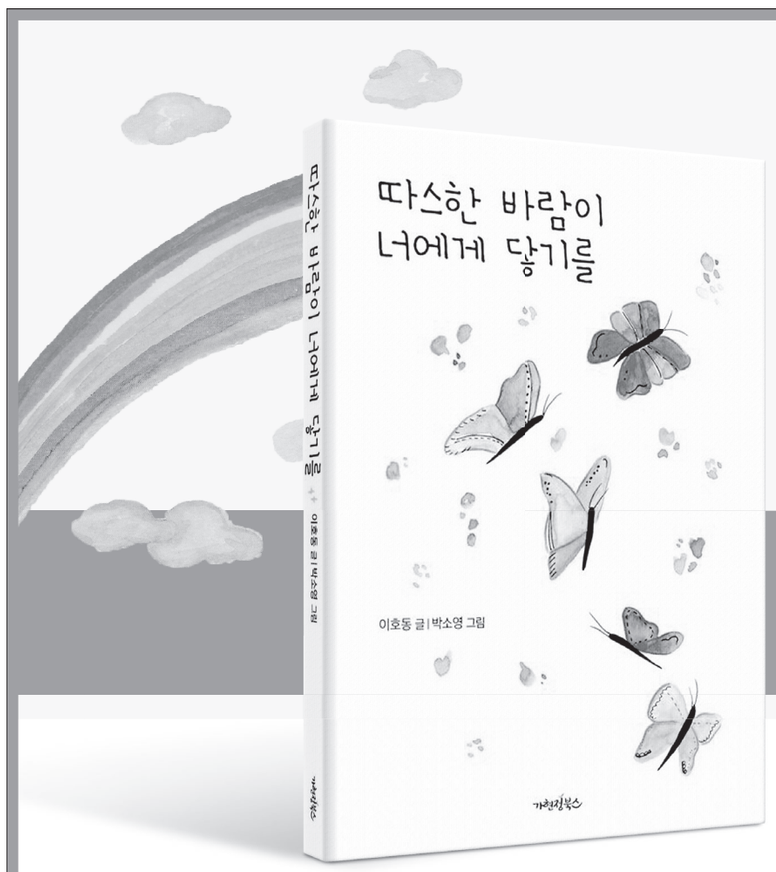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고창사랑카드, 모바일(고향사랑페이) 형태로 판매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70만원이다.

확대된 15% 할인율은 구매시 10% 선할인에 고창사랑카드 결제시 5% 후캐시백으로 지급된다.

또 지난달 22일부터는 고수, 아산(아산점, 선운사점),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성내, 부안 등 총 10개 면지역의 하나로마트가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됐다. 면 지역 군민도 보더욱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창군의 군민활력 지원금과 함께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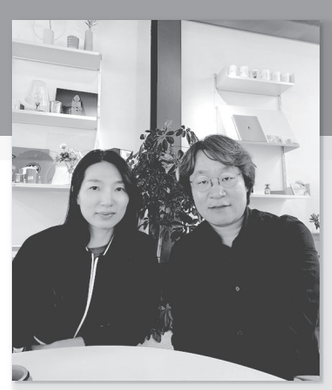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